

32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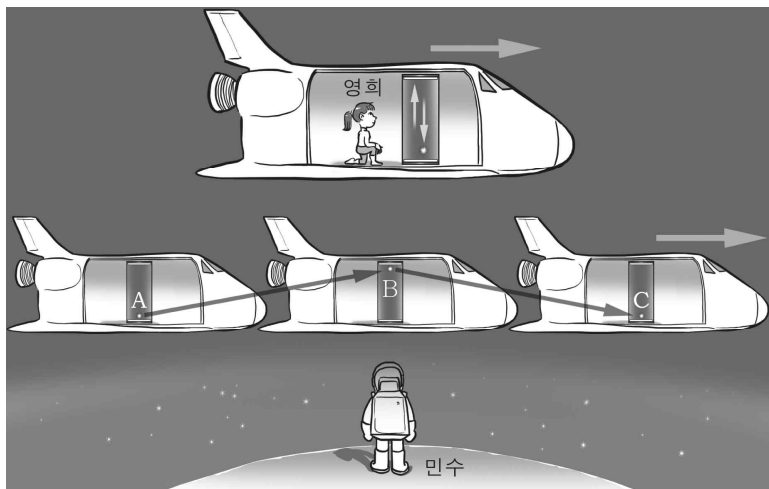
양to the치기 32일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창안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사슬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가정했다. 여기서 ‘특수’라는 말은 ‘특별하다’는 뜻보다는 매우 한정된 경우, 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상수 c 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만일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차의 전조등을 켜다면, 그 빛의 속도는 시속 100킬로미터 + c 가 아니라 여전히 c 라는 것이다. 즉,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한 범우 주적 상수이다.

빛의 속도의 불변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영희가 빛 시계를 관찰하고, 민수는 정지해 있는 행성에서 이 우주선의 빛 시계를 관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여기서 빛 시계란 거울을 사이에 두고 빛이 왕복하도록 만든 가상의 시계를 말한다. 만일 우주선 내부에 있는 영희가 보는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을 했다고 할 때, 행성에 있는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일까?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상하로 왕복할 때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이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될 것이다. 이때 빛은 A → B → C의 경로로 움직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영희가 관찰한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한 셈이 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민수는 우주선의 빛 시계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영희보다 더 길게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팽창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간 팽창 효과는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견줄 만큼 빨라야 눈에 띄게 나타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②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다.
- ③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상호 연관성을 전제한다.
- ④ 시간의 팽창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 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이다.

2. 밑글로 보아,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1971년 물리학자 조지프 하펠과 리처드 키팅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우선 초정밀 원자시계 8개를 준비하여 4개는 점보제트기에 실어 지구를 떠다니게 하고, 나머지 4개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 관측소에 남겨 놓았다. 이틀 동안의 여행을 마친 점보제트기가 착륙한 후 이를 기다리던 과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왜냐하면 ㉠

- ①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와 시간이 같았기 때문이다.
- ②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출발할 때와 달리 모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 ③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 4개가 모두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④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빨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 ⑤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느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3.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태도를 고려할 때, <보기>의 ‘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에는 그 책은 높이면서도 그 마음은 놓치고, 그 글은 외우면서도 그 뜻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각하면 망령된 짓이라고 하고, 의심하면 참람한 짓이라고 하며, 뜻을 밝히면 군더더기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소한 것까지 억지로 금령을 설치하여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구별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고인이 후인들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 사람이 백 리 길을 가는 것에 견주어 보자. 어떤 사람은 수레를 갖추고 마부가 길을 인도하게 하여 하루 만에 바로 도착하였고, 다른 사람은 여러 갈래의 지름길을 탐색하여 어렵사리 도달하였다.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똑같은 길을 가게 하면, 지름길을 탐색하면서 갔던 사람은 분명하게 길을 인식할 수 있어서, 마부가 길을 인도해 주어 갔던 사람이 갈림길에서 길을 헤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석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이익, 「논어질서서(論語疾書序)」—

< 보 기 >

학생: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최대한 많은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내용을 대강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도 다시 보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 ① 자료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 ②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해야 해요.
- ③ 작가의 생각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확인해 보아야 해요.
- ④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지식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 ⑤ 지나치게 어려운 책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해요.

양to the치기 32일차

[4~7]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영화에 제시되는 시각적 정보는 이미지 트랙에, 청각적 정보는 사운드 트랙에 ㉠ 실려 있다. 이 중 사운드 트랙에 담긴 영화 속 소리를 통틀어 영화 음향이라고 한다. 음향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영화의 장면을 적절히 표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음향은 소리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화면 안에 음원이 있는 소리로서 주로 현장감을 높이는 소리를 ‘동시 음향’, 화면 밖에서 발생하여 보이지 않는 장면을 표현하는 소리를 ‘비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한편 영화 속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소리, 즉 배경 음악처럼 영화 밖에서 조작되어 들어온 소리를 ‘외재 음향’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영화 속 현실에서 발생한 소리는 모두 ‘내재 음향’이다. 이러한 음향들은 감독의 표현 의도에 맞게 단독으로, 혹은 적절히 ㉡ 합쳐져 활용된다.

음향은 종종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화면을 가득 채운 얼굴과 함께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인물의 속마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인물의 표정은 드러내지 않은 채 심장 소리만을 크게 들려줌으로써 인물의 불안정한 심정을 표현하는 예도 있다. 주인공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관객에게 그대로 들릴 때, 관객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없앨 수도 있다. 이른바 ‘데드 트랙(Dead Track)’은 강렬한 인상의 음향만큼 효과적이다. 갑자기 의도적으로 소리를 제거한 영상이 나올 때, 관객은 주의를 집중하여 화면을 더 자세히 보게 된다. 이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에 ㉢ 빠져들게 되어 인물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음향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잇는 접착제로도 쓰인다. 뒷장면이 제시될 때까지 앞장면의 소리를 지속시키거나 앞장면의 끝 부분부터 뒷장면의 음향을 미리 사용하면 장면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장면과 장면의 소리가 ㉣ 겹쳐지게 할 수도 있다. 가령 아침에 알람 소리와 함께 시계로 손을 뻗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한 후, 오후에 전화벨 소리와 함께 전화기로 손을 뻗는 동작을 보여주면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영화의 화면이 누군가의 얼굴이라면 음향은 그 사람의 목소리이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 표정만으로는 그 내면을 온전히 알기 어렵듯, 음향이 빠진 화면만으로는 관객이 그 화면에 담긴 내적 의미를 ㉤ 알기 어렵다. 이처럼 음향은 영화의 장면 및 줄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제나 감독의 의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숨겨진 원리를 탐색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유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이 변화되어 온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분석한 후 서로 비교하고 있다.

5.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록(收錄)되어 ② ㉡: 결합(結合)되어
- ③ ㉢: 몰입(沒入)하게 ④ ㉣: 첨가(添加)되게
- ⑤ ㉤: 파악(把握)하기

<보기>를읽고29번과30번의두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A	S#.21 △△시 A 빌딩 앞(낮) ○ ㉠ 거리의 악사가 부르는 <u>낯선 노래</u> 가 들려오는 외국 도시에 첫사랑을 찾아 온 남자. ○ 빌딩을 올려다보며 그녀를 꼭 찾겠다는 결의에 찬 표정을 보인다.
B	S#.22 △△시 도심(낮) ○ ㉡ 옆에 걸어가 는 두 사람의 목소리와 거리의 자동차들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뒤섞여 시끄러운 거리에 있는 남자. ○ ‘그녀가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가 요란한 자동차 경적음에 깜짝 놀란다.
C	S#.23 ○○시 도심(낮) ○ 자동차 경적음으로 시끄러운, 또 다른 도시의 거리에 있는 남자. ○ 거리를 헤매다 순간 멈춰 서서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점차 극도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힘없이 걸어간다.
D	S#.24 ○○시 도심(저녁) ○ 늦은 저녁, 축 처진 어깨로 한적한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남자. ○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첫사랑 그녀와 마주친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② ㉠과 ㉡은 모두 외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③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동시 음향이다.
- ④ ㉠은 동시 음향이고, ㉡은 비동시 음향이다.
- ⑤ ㉠은 외재 음향이고, ㉡은 내재 음향이다.

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영화에 음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 결의에 찬 모습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넣어 인물의 정서를 표현한다.
- ② B에 인물의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그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 ③ C에서 소리를 일시적으로 없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극도의 절망감에 관객이 빠져들게 한다.
- ④ A와 D에 동일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공간의 동일성이 드러나게 한다.
- ⑤ B와 C에 유사한 자동차 경적음을 겹치게 하여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양to the치기 32일차

[8~11]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늙은 모친 병들어 누웠는데, 닭 한 마리, 약 한 첩도 봉양은 아니하고 잘 먹이지 아니하니, 냉돌방에 홀로 누워 서럽게 울며 하는 말이,

“너를 낳아 길러낼 제 애지중지 나의 마음 보옥같이 사랑하여 어루만져 하는 말이 ㉠ ‘은자동아 금자동아 무하자태 백옥동아 천지만물 일월동아 아국사랑 간간동아 하늘같이 어지어라 땅같이 너롭거라.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천상 인간 무가보(無價寶)는 너 하나뿐이로다.’ 이같이 사랑하여 너 하나를 길렀더니 천지간에 이런 공을 모르느냐. 옛날 왕상(王祥)이는 얼음 속에 잉어 낚아 부모 봉양 하였으니 그렇지 못하여도 불효는 면하여라.”

불측한 고집이놈이 어미 말에 대답하되,

“진시황 같은 이도 만리장성 쌓아 두고 아방궁 높이 지어 삼천 궁녀 호위를 받으며 천년이나 사셨더니, 일분총(一墳塚)을 못 면하여 죽어 있고 백전백승 초패왕도 오강에 죽어 있고, 안연 같은 현학사도 삼십에 조사(早死)커든 오래 살아 무엇하리. 옛글에 인간칠십(人間七十) 고래희(古來稀)라 하였으니, 팔십 당년 우리 모친 오래 살아 쓸데없네. 오래 살수록 욕됨이 많으니 우리 모친 뉘라서 단명하리. 도적이 같은 몹쓸 놈도 천추에 유명커든 무슨 시비 말할손가.”

(중략)

“애고 애고 저놈 보소. 제가 나인 체하고 천연히 앉아 좋은 말로 그렇듯 말하네. 내가 옹가냐, 내가 옹가지.”

하고 서로 다툼 적에 김 별감 하는 말이,

“양 옹이 옹옹하니 이 옹 저 옹을 분별하지 못하겠네. 관가에 송사나 하여 보소.”

양 옹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붙들고 관청에 들어가는데, 얼굴도 같고 의복도 같고 머리 가슴 팔뚝 다리까지 같았으니, 그동안의 진위를 뉘가 알리오.

실옹이 먼저 아뢰되,

“민(民)이 옹당촌에서 대대로 살아왔사온데 천만의외 알지 못하는 허인이 민의 행색같이 하고 들어와 민의 집을 제집이라 하고, 민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하오니 세상에 이러한 흉한 일이 어데 또 있사오리까? 명명하신 성주는 이놈을 엄문하와 사리를 분명히 밝혀 주옵소서.”

허옹가 또 아뢰되,

“민이 아뢰 말씀을 저놈이 다하였사오니 민은 아뢰 말씀 없사오니 명백하신 성주는 통촉하시어 허실을 가려 주옵소서. 인제 죽사와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사또 분부하되,

“양 옹은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되,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 말을 옳다 하고 호적을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 양 옹의 호적을 들을 제 실옹이 나았으며 아뢰되,

“민의 애비 이름은 옹송이웁고 조부는 만송이로소이다.”

사또 왈,

“그놈 호적은 옹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라.”

(중략)

사또 듣기를 다하매 왈,

“그대가 참 옹 좌수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불러

“이 양반께 술 권하여라.”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답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다 다나 잡수시오.”

옹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 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한번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줘세.”

실옹을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흥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하려 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법에 따라 귀양을 보낼 것이로되 가벼이 처벌하니 바빠 어서 물리치라.”

대곤 삼십 도를 매우 쳐서 엄문죄목하되,

“인제도 옹가라 하겠느냐?”

실옹이 생각하되 만일 옹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 하니,

“㉡ 예, 옹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여,

“관원을 시켜 저놈을 마을 밖으로 내쫓게 하리라.”

하니 벌떼 같은 군노 사령 일시에 달려들어 옹가 상투를 잡아 휘휘 둘러 내쫓으니 실옹이 하릴없이 거리에서 빌어먹어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 우는 말이,

“답답하다 내 일이야. 꿈이나 생기냐. 어찌하여야 옳단 말이냐. 뜻밖에 일어난 횡액이로다.”

무지한 고집이놈 인제는 개과하여 애통해 하는 말이,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거니와 당상 학발(堂上鶴髮)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여지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月下)의 인연 맺어 일월(日月)로 본증(本證) 삼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 종사 하겠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 없이 홀로 누워 전전 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슬하의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제 ㉢ ‘섬마둥둥 내 사랑 후두둑 후두둑 업마 아빠 눈에 암암’ 나 죽겠네. 아매도 꿈인가 생신가. 꿈이거든 깨이거라.”

허옹가 거동 보소. 승소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하는 거동 그야말로 제법이다. 열씨구나 좋을시고. 손춤 치며 노랫가락 좋을시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허허 흉악한 놈, 하마터면 우리 고운 마누라 빼앗길 뻔하였다.”

- 작자미상, 「옹고집전」 -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옹은 조상대대로 살던 곳에서 살고 있다.
- ② 허옹은 참옹으로 인정받은 후 실옹을 조롱하고 있다.
- ③ 사또는 외모를 근거로 허옹을 참옹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④ 실옹은 송사에서 패한 후에 거리를 떠돌며 빌어먹고 있다.
- ⑤ 허옹은 자신을 참옹으로 인정해 준 성주의 공을 치켜세우고 있다.

양to the치기 32일차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특정 인물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 비해 ㉡은 특정 인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 ㉡ 모두 특정한 대상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서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삶의 안정을 꾀한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결정적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삶이 황폐해진 개인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 공동체로의 복귀를 소망하게 된다.
- ① 실용이 노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지켜야 할 가족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실용이 모친의 말에 진시황 등을 들며 대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실용이 송사에 저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결정적 사건으로 볼 수 있군.
 - ④ 실용이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자신을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실용이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의 복귀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11. ㉢에 나타난 실용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중지란(自中之亂)
- ② 과유불급(過猶不及)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④ 괘목상대(刮目相對)
- ⑤ 자포자기(自暴自棄)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운 섬돌 좋은 흙에 촘촘히 심어 내니
봄 삼월 지난 뒤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하네.
정숙한 기상을 나뉘에 뉘 벗할까.
옥난간 기나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창문을 반쯤 열고 아이를 불러 시켜,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상자 안에 가득 담고,
바느질을 끝낸 후에 안채에 밤이 들어
환한 촛불 아래 가깝게 다가앉아
㉠ 흰 백반을 갈아 바수어 옥 같은 손 가운데 곱게곱게 개어 내니
파사국(波斯國)* 임금의 산호 궁전을 헤쳐 놓은 듯,
궁궐 붉은 도마뱀을 절구에 뺨아 놓은 듯,
섬섬옥수 열 손가락을 수실로 감아 내니,
㉡ 종이 위로 붉은 꽃물 미미하게 스미는 듯
미인의 열은 뺨에 붉은 안개 끼이는 듯
㉢ 단단히 묶은 모양 비단에 옥글씨로 쓴 편지를 왕모(王母)*
에게 부치는 듯.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을 대하여 눈썹을 그리려니
㉣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
친구를 서로 불러 즐겁게 자랑하고,
㉤ 쪽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아니 옳
겠는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한 여인이 표연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謝禮)하는 듯 하직하는 듯.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
창문을 급히 열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위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산의 도리화는 잠간의 봄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까.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리하여 지었구나.
- 작자미상, 「봉선화가」 -

* 파사국(波斯國) : 페르시아.

* 왕모(王母) :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의 선녀인 서왕모.

양to the치기 32일차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상황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정을 절제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객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1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정을 제시하여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붉은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미화된 표현을 통해 봉선화 물들이기에 기울인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역동적인 묘사를 통해 봉선화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 물의 붉은 빛을 강조하고 있다.

14.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적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시적 화자는 ‘녹의홍상 한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통해 봉선화의 낙화를 예감하고 있군.
- ③ 시적 화자는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음을 근거로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라고 하며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군.
- ④ 시적 화자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는 ‘동산의 도리화’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이를 슬퍼하고 있군.
- ⑤ 시적 화자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라고 말함으로써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드러내고 있군.

해석

①⑤①②④
③④③⑤②
⑤③④④

[1~3] (과학) 마이클 브룩스, 『시간의 팽창』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여기서는 빛의 속도가 불변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는 현상, 즉 ‘시간의 팽창’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한 범우주적 상수로서, 빛의 속도가 불변함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

1.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라는 말은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네 번째 단락에서 ‘시간 팽창 효과는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견줄 만큼 빨라야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하므로, 이 현상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영화와 민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관측자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운동하고 있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므로,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변한다.

2.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에 제시된 실험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의 팽창’ 현상에 관한 실험이다. 시간의 팽창 현상이란 정지한 물체에 비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이다. 이 실험으로 인해 시간의 팽창 현상이 증명되었다고 했으므로,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은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느려져 있어야 한다.

[3] (독서) 이익, 『논어질서서(論語疾書序)』

이익은 고인의 책을 읽을 때 주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소 힘이 들더라도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선인들의 글에 나타난 독서 태도를 적용한다.

<보기>의 학생은 많은 책을 읽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인터넷 자료에만 의존하여 내용을 대강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익이 강조하고 있는 독서 태도를 고려할 때, 이 학생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4~7] (예술) 구경은, 『영화와 음악』

영화 음향을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음향이 영화의 주제나 감동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어떤 기능을 갖는지 설명하면서 음향의 의의를 도출하는 글이다.

4.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파악한다.

2문단에서 음향의 유형을 내재와 외재, 동시와 비동시 등으로 분류하고, 3~5문단을 통해 음향이 정서와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장면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음향의 개념은 나와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한 설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음향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이 영화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어떤 기능을 갖는지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를 선택한다.

‘첨가(添加)’는 덧붙인다는 의미이므로 ㉔의 ‘겹쳐지게’의 의미와 맞지 않다. ㉓는 문맥상 ‘중첩(重疊)되게’, ‘연결(連結)되게’ 정도로 고칠 수 있다.

6.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㉑과 ㉒ 모두 영화 속 현실에서 발생한 소리이므로 내재 음향이다. ㉑의 경우 A의 화면 속에서 거리의 악사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 ㉒의 경우 역시 B의 화면 속에서 걸어가는 두 인물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모두 동시 음향이다.

7. [출제의도] 읽은 내용을 사례에 맞게 적용한다.

A~D의 흐름으로 보아 인물이 여러 공간을 찾아다니는 내용이므로 A와 D의 공간의 동일성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장면의 시공간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배경 음악보다는 장면 사이에 유사한 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④의 진술은 맞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배경 음악으로 인물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인물의 목소리로 인물의 속마음을 표현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데드 트랙을 활용하여 인물의 상황에 관객이 빠져들도록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유사한 소리를 겹치게 하여 장면 사이를 연결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8~11] (고전소설) 작자미상, 『웅고집전(壘固執傳)』

웅고집은 모친을 학대하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허옹이 등장하자 관가에 가서 송사를 벌였으나 저서 쫓겨난 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

8.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양 옹이 이 말을 듣고 ~그동안의 진위를 뉘가 알리오.’에서 참옹을 외모를 근거로 판단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민이 웅당촌에서 대대로 살아왔사온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허옹가 거동보소 승소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 하는 거동~조롱하여 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실옹이 할 일 없어 거리에서 빌어먹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삽입된 노래의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㉑은 웅고집 모친이 웅고집의 학대를 서러워 하면서 떠올린 노래이고 ㉒은 집에서 쫓겨난 실옹이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면서 떠올린 노래이다.

1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효를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 도리로 숭상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웅고집은 효의 가치를 폄하하고 노모를 학대하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로부터 축출된 것이다. 웅고집의 불효에 대해 그 모친은 서러운 심정을 말하고 있으나, 웅고집은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말을 경고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

11. [출제의도] 한자성어를 사용해 인물의 심정을 표현한다.

실옹은 송사에서 진 데다 매질까지 당하게 된 상태에서 자신이 옹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실망과 불만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형편과 전도를 파피하고 돌보지 않음.’이라는 자포자기(自暴自棄)의 심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중지란(自中之亂): 자기네 패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질이란 뜻. ②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이라는 뜻.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이라는 뜻. ④ 괘목상대(刮目相對): 남의 학식이 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었다는 뜻.

[12~14] (고전시가) 작자미상, 『봉선화가』

‘봉선화가’는 봉선화를 중심 소재로 하여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자미상의 가사 작품이다. 향기가 없다는 봉선화의 속성에서 벌과 나비를 꺼려하는 정숙한 기상을 발견하고 이를 ‘나밖에 뉘 벗할까’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시적 화자는, 봉선화를 직접 심고 그 꽃잎을 뜯어 손톱에 봉선화 꽃물을 들임으로써 봉선화의 자취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 인연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개괄적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봉선화를 완상하다가 꽃을 직접 심고 그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인 후 이를 통해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표현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봉선화꽃을 비롯한 일상적 소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삶에 대한 반성과는 관련이 없다.

13. [출제의도]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

‘가지에 붙어 있는 듯’한 ‘붉은 꽃’이란 손가락 끝 붉은 꽃물이 든 손톱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들을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진다고 하여 움직이는 손가락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㉑에서는 흰 백반을 갈아부수어 손 한 가운데 개어 올리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② ㉒에서는 ‘~하는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붉은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③ ㉓에서는 봉선화 꽃잎과 백반가루를 섞은 것을 손톱에 올리고 이것을 단단히 싸맨 모습을 ‘비단에 옥글씨로 쓴 편지’와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여 화자의 정성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㉔에서는 ‘청출어람’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을 통해 봉선화 꽃물의 붉은 빛을 강조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시적 화자는 시든 후에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도리화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꽃의 아름다움은 순간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시적 화자는 꿈에서 ‘녹의홍상 한 여인’을 만나고 이를 꽃귀신이 하직하는 것으로 파악한 후 봉선화의 낙화를 실제로 확인하고 슬퍼하고 있다. ③, ⑤ 시적 화자는 손톱에 봉선화 꽃물을 들임으로써 시적 화자는 봉선화와의 각별한 인연을 간직하고, 도리화와 달리 그 자취가 자신의 손에 남았음을 언급하며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다.